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반도체 ‘증가’, 섬유 ‘감소’,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유지 (-1.0%)	유지 (1.4%)	유지 (-0.7%)	감소 (-2.9%)	유지 (-1.0%)	증가 (2.7%)	유지 (0.1%)	유지 (-0.2%)	유지 (-0.6%)	유지 (0.8%)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연간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진한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영향으로 2025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요산업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하반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수출 증가세 완화와 함께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2025년 5월 말 국내 조선소 수주 잔량은 3,571만 CGT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국내 조선소는 약 3~4년 치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 2025년 1~5월,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16만 CGT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선박류 수출은 26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하반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IT 제품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국내 IT 신제품 출시, 전기차 판매 개선 등의 효과로 2025년 하반기 정보통신기기와 이차전지의 내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부가 반도체 제품 비중 증가 등 IT 신산업군 수출은 2025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대외환경 불확실성, 해외 생산 확대 등은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IT 제품 수요 개선으로 내수 반등이 기대되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으로 2025년 하반기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기능성 소재 증설분 본격 가동으로 생산 확대가 기대되나 미국 관세부과로 인해 기존 공급망이 급변한다면 국내 생산과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직물, 염색·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 증가로 국내 생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5> 철강 : 수출 여건 악화에도 내수가 소폭 반등하여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기대로 2025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철강의 아세안 유입 확대, 미국 관세 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2025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부진 및 수출 여건 악화로 생산량은 감소하나 내수 회복 기대로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6> 반도체 :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반도체 시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 속에서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1,5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 중심의 설비투자 증대로 2025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자동차 :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내수와 생산이 유지 또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이 축소되어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제약으로 신차 구매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관세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량 유지 기대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고부가가치 분야인 OLED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AI 기능 본격화, IT·자동차 OLED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OLED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고부가가치 채택 확대와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OLED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LCD 부분도 2026년 상반기 개최될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0.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9> 금속가공 : 건설업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수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건설 및 제조업 둔화로 2025년 하반기 내수 시장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은 2025년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하반기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석유화학 :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불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에도 글로벌 수요 회복 가능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고용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8%(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붙임 :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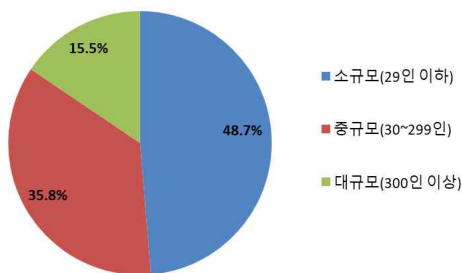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책임자	팀 장	정순기 (043-870-8229)
		담당자	부연구위원	김새봄 (043-870-8231)
			부연구위원	김수현 (043-870-8230)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담당자	실 장	정용욱 (02-6009-3230)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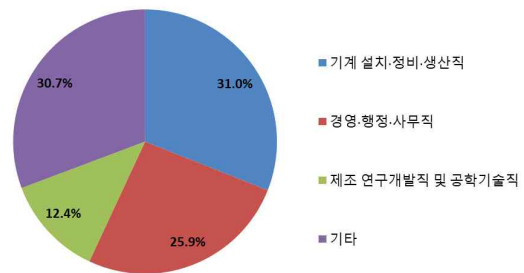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44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2.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48.7%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5.8%,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15.5% 근무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3.7%)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3%)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창원시(8.0%), 경기 화성시(7.9%), 경기 시흥시(4.1%), 경남 김해시(3.8%), 부산 강서구(3.6%), 경기 안산시(3.0%), 인천 남동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1.0%), 경영·행정·사무직(25.9%),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4%)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444천 명) 대비 0.2%, 1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3.4천 명, 채용인원 18.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7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19.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p 낮고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12.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9.8%)',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2.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2.8%), 경영·행정·사무직(15.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7.0%), 경남(17.2%), 충남(10.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경기전망

- (수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 하방 요인으로 상반기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7.2% 감소한 475억 7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를 전망
- (내수) 부진한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는 약 1.7% 감소 전망
 - 수요산업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및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로 인해 감소 예상
- (생산)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연간 생산 감소 전망
 - 일반기계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또한 감소로 전환되면서 상반기 2.5% 감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3.5% 감소 전망

【일반기계산업 하반기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생산 (십억 원, %)	155,045 (3.1)	75,732 (-3.7)	76,987 (0.7)	152,719 (-1.5)	73,812 (-2.5)	74,270 (-3.5)	148,082 (-3.0)
내수 (십억 원, %)	125,486 (-2.1)	61,247 (-6.2)	64,037 (6.3)	125,284 (-0.2)	61,614 (0.6)	62,960 (-1.7)	124,573 (-0.6)
수출 (백만 달러, %)	53,432 (4.6)	26,072 (-2.1)	25,100 (-6.3)	51,172 (-4.2)	23,866 (-8.5)	23,641 (-5.8)	47,50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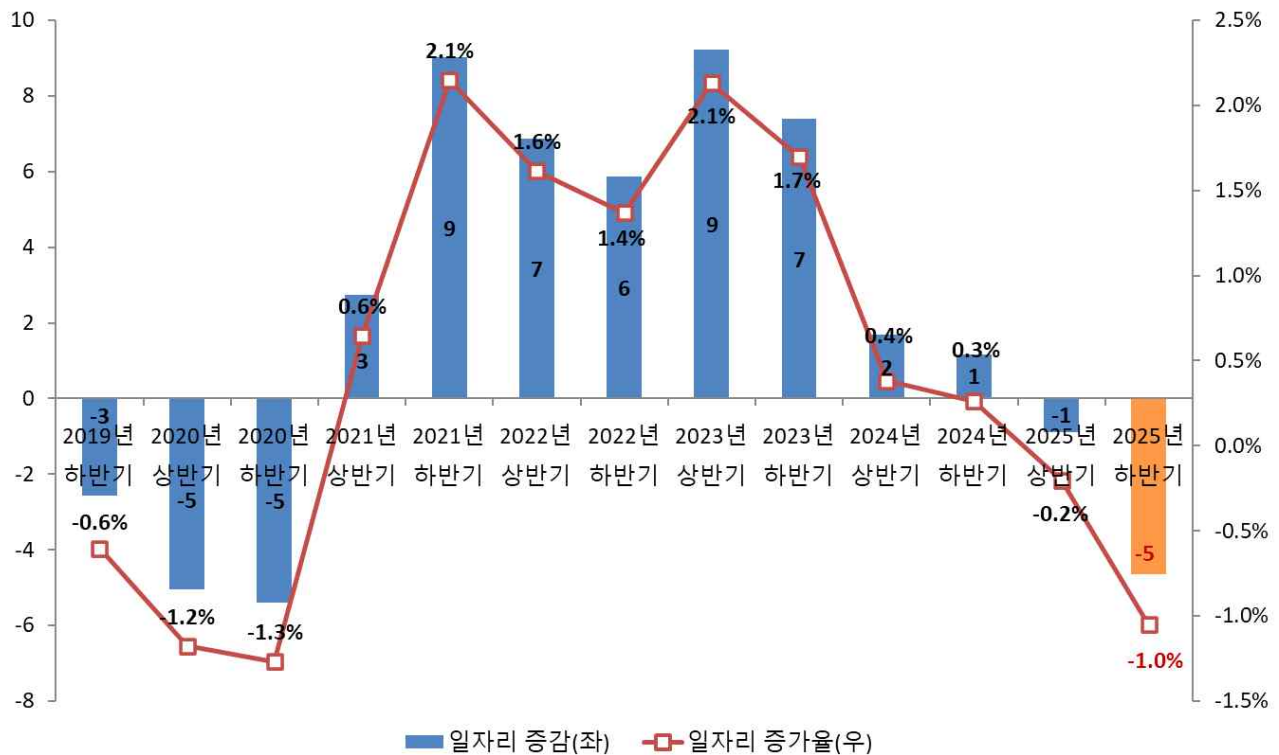
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2025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1	1.6	1.4	2.1	1.7	0.4	0.3	-0.2	-1.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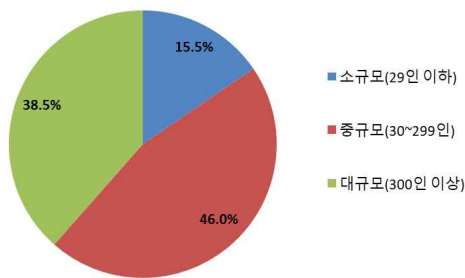
● 2025년 하반기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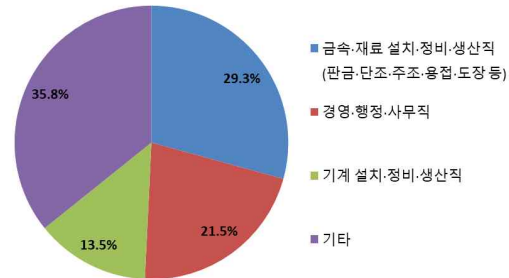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을 제조하는 국가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상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46.0%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38.5%,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5.5%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5.8%), 울산 동구(28.8%)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3.8%), 경남 창원시(3.2%), 부산 영도구(3.0%)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9.3%), 경영·행정·사무직(21.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5%)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114천 명) 대비 2.8%,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8천 명, 채용인원 3.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7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17.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9.4%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40.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3%)',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0%)'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2.9%), 경영·행정·사무직(19.8%), 건설·채굴직(14.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울산(45.6%), 경남(39.6%), 전남(11.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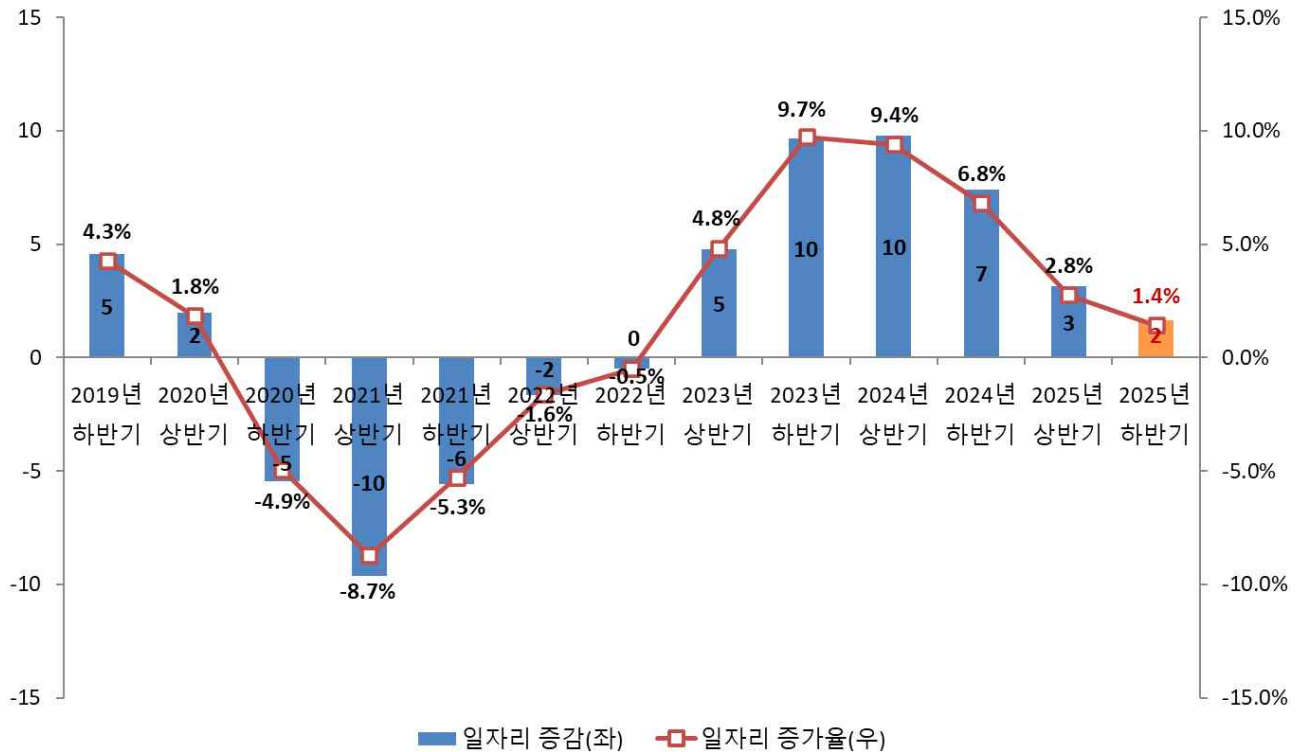
경기전망

- (건조) 2025년 1~5월, 국내 조선소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16만 CGT를 건조
 - 기존에 확보한 수주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 (수출) 2025년 선박류 수출은 26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 전망, 2025년 5월 기준 선박류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
- (수주잔량) 2025년 5월 말 국내 조선소 수주 잔량은 3,571만 CGT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 국내 조선소는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4년 치 일감 확보
- (선가) 2025년 5월 신조선가는 186.69pt로 2024년 말 대비 2.51pt 감소, 신조선가 지수는 189.96pt(2024년 9월)까지 지속 상승한 후 원만한 하락세를 보임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5.3	-1.6	-0.5	4.8	9.7	9.4	6.8	2.8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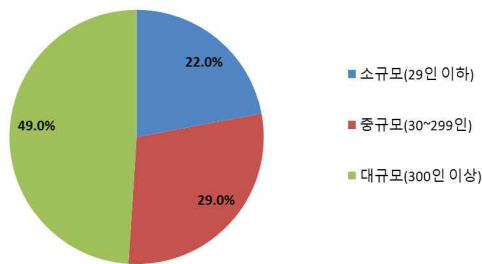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4년 하반기 대비 1.4%(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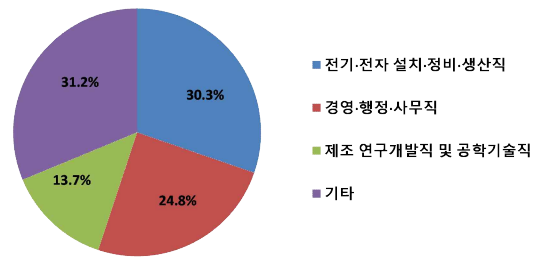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부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상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61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4.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49.0%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9.0%,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22.0%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6.7%), 전기장비 제조업(3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0.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20.1%), 서울 영등포구(9.7%), 경기 용인시(6.3%), 경기 화성시(3.9%), 경기 안산시(3.5%), 경남 창원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0.3%), 경영·행정·사무직(24.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3.7%)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763천 명) 대비 0.2%,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3.5천 명, 채용인원 19.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9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16.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8.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1.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8.2%)'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5.1%), 경영·행정·사무직(16.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0.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0.2%), 경북(7.4%), 경남(6.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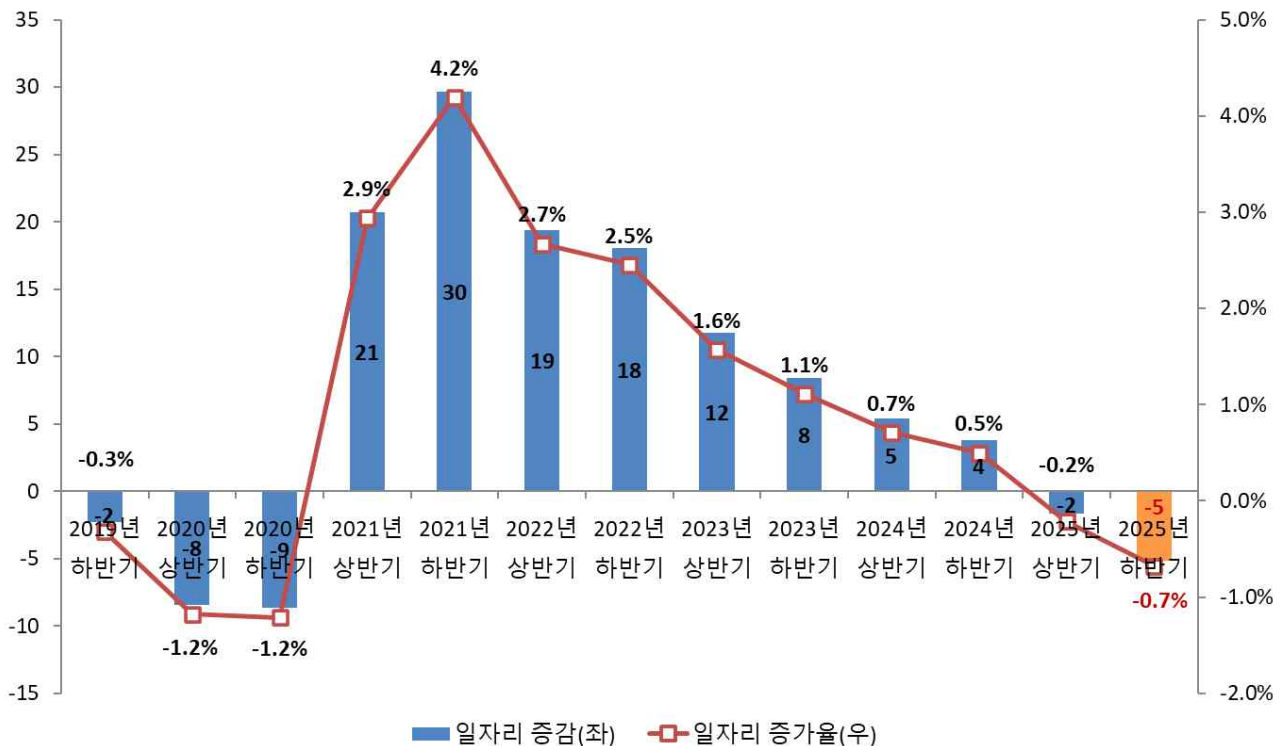
경기전망

- (종합)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및 자국 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IT 수요 개선이 정보통신기기 생산과 수출 확대를 견인할 전망(산업연구원, 2025년 5월)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나,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 통상정책 리스크는 세계 시장 수요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이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생산·수출 확대를 견인할 전망
 - (가전)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소폭 감소 전망
 - * 2025년 가전산업은 선진국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과 해외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 가속화로 수입은 증가할 전망
- (수출) AI 적용 확산 등의 긍정적인 글로벌 IT 수요 상황 속에서 고부가 반도체 제품 비중 증가 등 IT신산업군은 2025년에도 4.7%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단, 관세 리스크, 중국의 급성장 및 해외 생산의 확대는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수) 국내 IT 신제품 출시, 전기차 판매 개선 효과로 인해 하반기 정보통신기기(5.5%)와 이차전지(6.8%)의 내수 반등이 나타날 전망
- (생산)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1%)의 생산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가전(-0.5%)과 이차전지(-2.2%)는 하반기에도 생산이 지속 감소할 전망
- (수입)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IT·가전 수입 증가 예상, 국내 내수 개선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입 감소폭은 크게 축소될 전망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4.2	2.7	2.5	1.6	1.1	0.7	0.5	-0.2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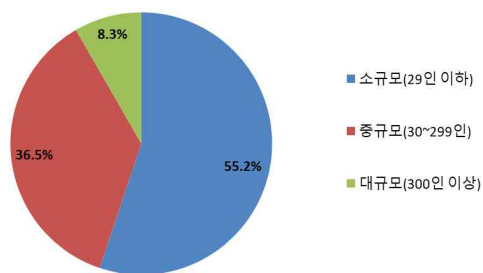
- 2025년 하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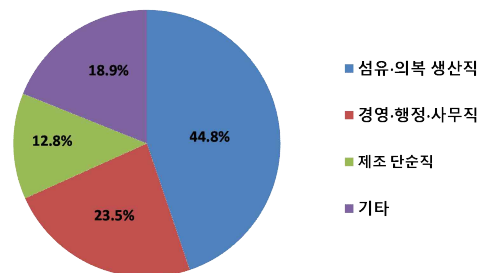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506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55.2%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6.5%,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8.3%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8%)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6%), 경기 포천시(3.6%), 경기 양주시(3.4%), 경북 구미시(3.3%), 서울 강남구(3.1%), 대구 달서구(2.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4.8%), 경영·행정·사무직(23.5%), 제조 단순직(12.8%)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151천 명) 대비 3.6%, 5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6천 명, 채용인원 7.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9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10.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3%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2.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3.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2.1%)',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4.3%)'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5.2%), 제조 단순직(24.4%), 경영·행정·사무직(13.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45.0%), 경기(12.2%), 대구(11.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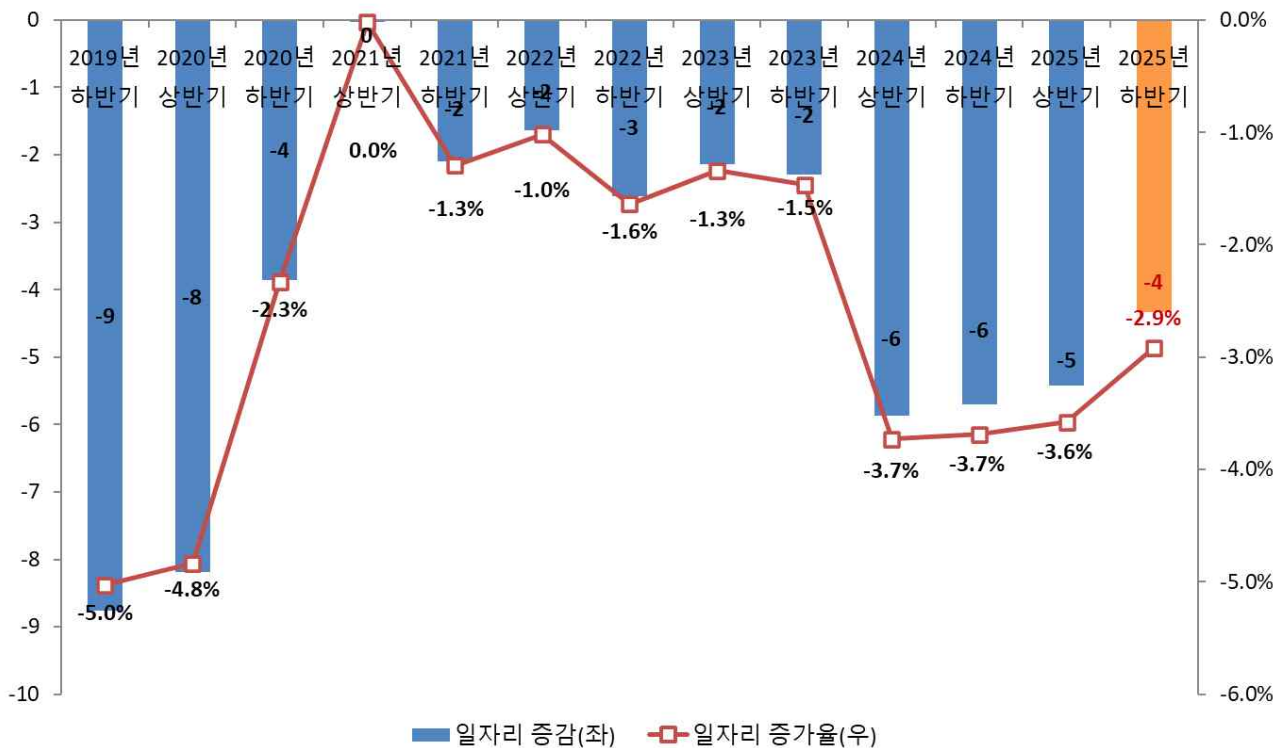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교역 불확실성 일부 해소, 반면 범용소재 판매의 부진 지속
 - (美中수요) 중국 등 경쟁국의 對美 수출 감소 시 일부 반사이익, 對중국 K-패션 수요 회복(한한령 해제), 산업용 섬유 수요 회복 등
 - * 2024년 국가별 의류 수출(억 달러, 비중%) : 중국(5, 28), 베트남(3, 17), 미국(3, 14)
 - (보호무역)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기존 공급망(베트남 및 아세안) 급변 시 국산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국내 생산 감축 시 수출 감소
 - * 2024년 섬유 수출 비중 : 아시아(61.3%), 유럽(14.2%), 북미(13.9%), 중동(4.8%)
- (수입) 의류 역수입 증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유입 확대
 - (해외생산) 국내 인건비 상승,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 증가세 및 역수입 증가
 - (중국제품) 해외 생산 의류제품의 역수입 증가, C-커머스를 통한 중국산 의류의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입 증가세
 - * '25.1~4월 국내 e커머스 월평균 사용자(만 명) : 쿠팡(3,329), 알리(895), 11번가(827), 테무(821), G마켓(640), 컬리(339)
- (생산) 해외 생산분 증가세, 범용 원사의 전방산업인 직물, 염색·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부진 초래
 - (산업용) 아라미드 및 탄소섬유 등의 고기능성 소재 증설분 본격 가동으로 일부 품목은 회복세
 - * 2025년 국내 첨단소재 설비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23% 증가 전망(현재 증설 포함)
 - (생산부진) 범용 원사 전방산업인 직물, 염색·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등
- (내수) 추경·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소비개선으로 소비재 판매 활성화
 - (정부정책) 정부의 내수 진작 의지 및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 (감소요인) 상반기 단기 급등한 자산시장의 일부 조정가능성 대두,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 도입 등은 내수 회복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1.3	-1.0	-1.6	-1.3	-1.5	-3.7	-3.7	-3.6	-2.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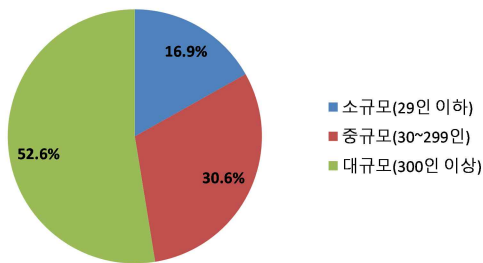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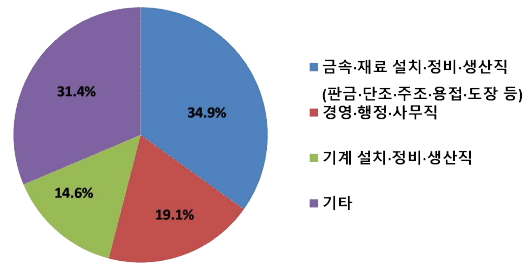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절반 이상인 52.6%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0.6%,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16.9%가 종사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24.1%), 충남 당진시(11.5%), 경남 창원시(8.7%), 전남 광양시(4.4%), 울산 울주군(4.1%), 인천 동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4.9%), 경영·행정·사무직(19.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6%)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117천 명) 대비 0.4%, 1천 명 감소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소규모 사업체(29인 이하)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8천 명, 채용인원 4.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2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21.5%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8%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13.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0%)'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3.2%), 제조 단순직(20.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5.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1.3%), 충남(18.9%), 경북(13.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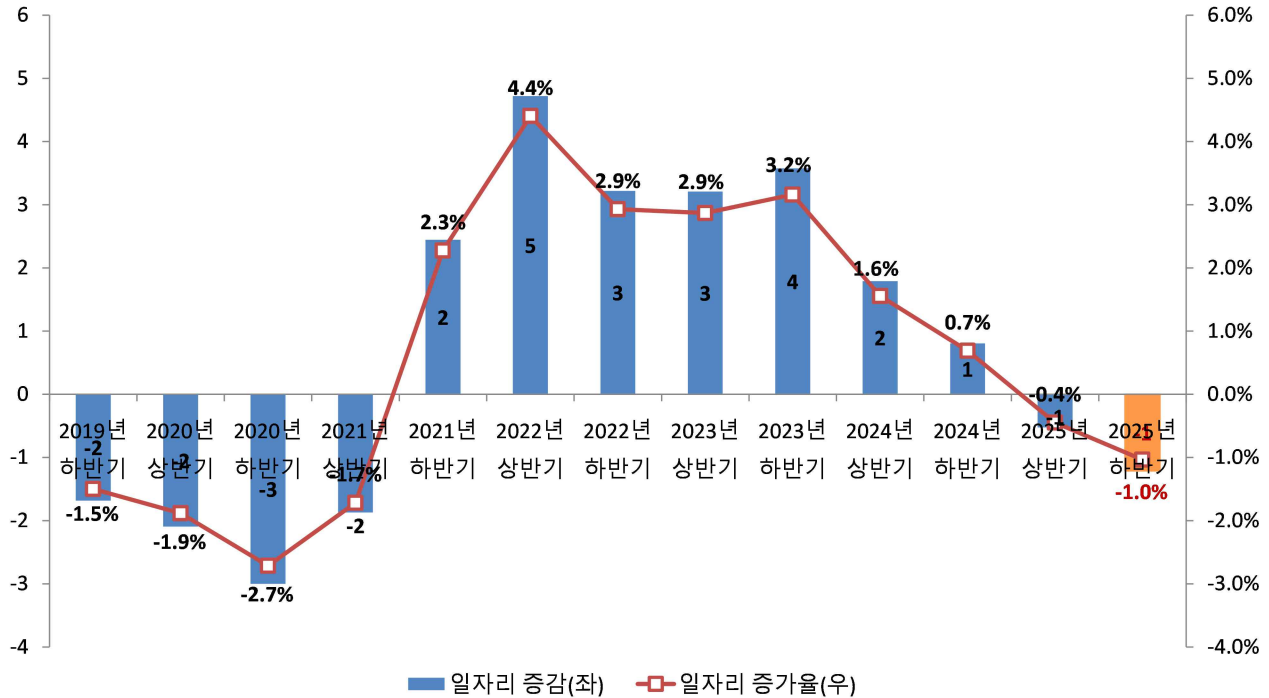
경기전망

- (내수) 지속된 수요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3% 소폭 반등한 22.7백만 톤 전망(2025년 하반기 기준)
 - (증가 요인)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건설경기 회복 등
- (수출) 국내 수출 제한에 따른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4.2백만 톤 전망(2025년 하반기 기준)
 - (감소 요인) 중국산 철강의 아세안 유입 확대, 미국의 철강관세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 등
- (생산) 내수 부진 및 수출 환경 악화로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32.7백만 톤 전망(2025년 하반기 기준)
- (수입) 제품별 중국산 AD 검토 등 수입산 철강재 방어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6.5백만 톤 전망(2025년 하반기 기준)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3	4.4	2.9	2.9	3.2	1.6	0.7	-0.4	-1.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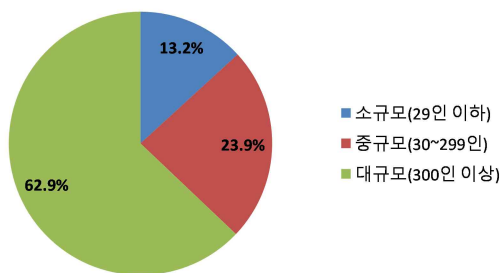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북, 경기, 인천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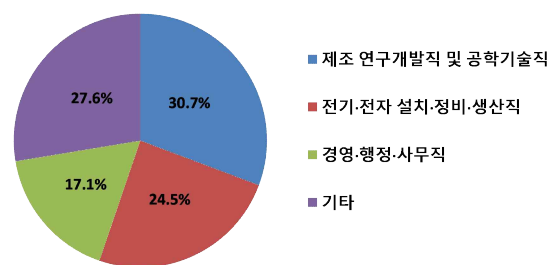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62.9%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3.9%,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3.2%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7.9%)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2.1%)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2%), 경기 화성시(10.0%), 충북 청주시(8.0%), 충남 천안시(6.8%), 경기 평택시(6.0%), 경북 구미시(4.0%), 경기 부천시(3.7%), 충남 아산시(3.6%)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0.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4.5%), 경영·행정·사무직(17.1%)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147천 명)에 비해 3.4%,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8천 명, 채용인원 7.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0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11.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8%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3.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0.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8%)'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4.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1.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8.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0.4%), 충남(18.7%), 인천(10.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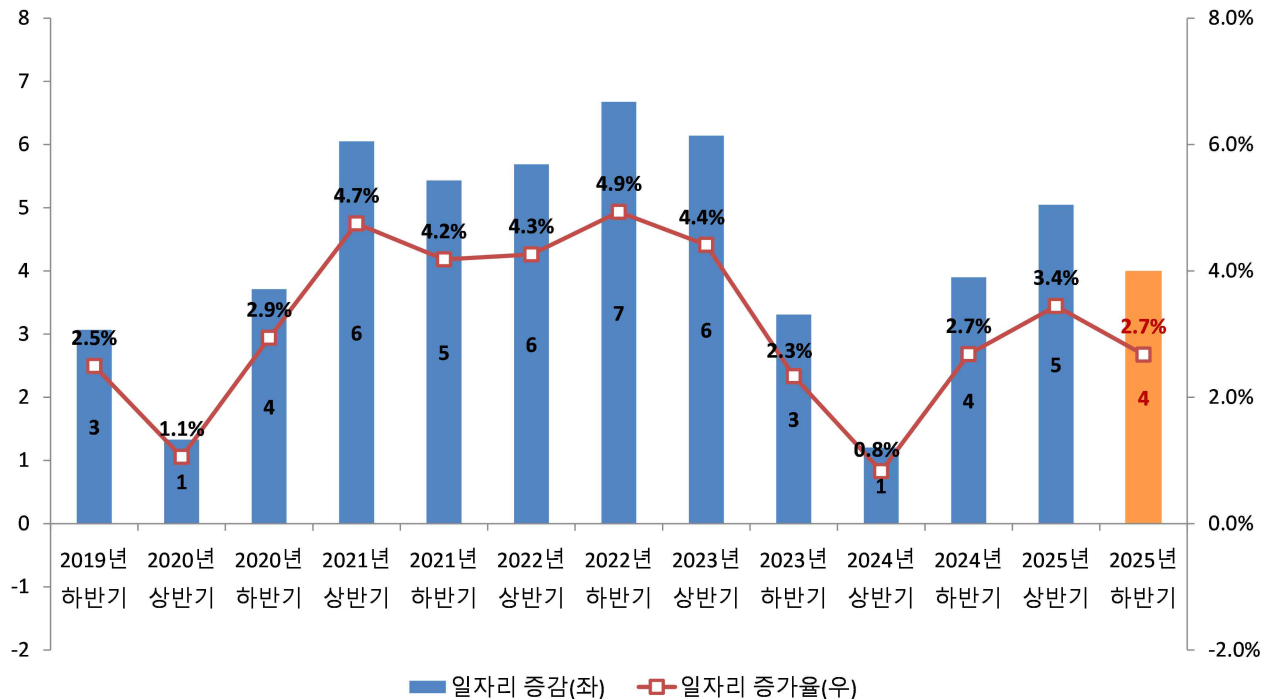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5년 글로벌 시장 전망) AI·고부가 메모리(HBM 등) 수요는 견조하나, PC·스마트폰 등 범용 IT 기기 수요 둔화로 2024년 6,305억 달러 대비 약 11.2% 증가한 7,009억 달러(출처: WSTS)로 성장 전망
 - (메모리) AI 및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강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약 20.3%의 높은 성장 예상
 - *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21)1,696→('22)1,458→('23)962→('24)1,679→('25e)2,020
 - * D램 시장 전망(OMDIA): 2024년 976억 달러 → 2025년 1,254억 달러 (약 28.5% 증가 예상)
 - * NAND 시장 전망(OMDIA): 2024년 657억 달러 → 2025년 718억 달러 (약 9.4% 증가 예상)
 - (시스템반도체) AI, IoT 등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3.9% 성장 전망
 - * 시스템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21)3,360→('22)3,615→('23)3,650→('24)4,268→('25e)4,861
- (2025년 수출 전망) 2024년 반도체 수출은 HBM, DDR5 등 첨단 메모리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1,419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 속에서도 AI 관련 견조한 수요 및 주요 업체들의 DDR4 생산 종료 등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1,500억 달러 내외로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 (메모리) 메모리반도체 양극화(HBM 등 고부가메모리 수출 증가, 기존 PC 스마트폰 등 범용 메모리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한 955억 달러 기록 전망('24년 883억 달러)
 - * 메모리반도체 연간 수출액 전망(억 달러): ('21)824 → ('22)738 → ('23)514 → ('24)883 → ('25e)955
 - (시스템반도체) IT 제품 수요 둔화 속에서도 PC/스마트폰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소폭 상승(1.3%)할 것으로 전망
 - * 시스템반도체 연간 수출액 전망(억 달러): ('21)398 → ('22)507 → ('23)430 → ('24)479 → ('25e)485
- (2025년 투자 전망)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5나노 이하 등)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2024년 대비 약 4.7% 증가한 1,869억 달러의 투자 예상
 -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와 선단공정 중심의 설비 확충 지속 전망
 - *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억 달러, Gartner): ('21)1,524 → ('22)1,826 → ('23)1,724 → ('24)1,786 → ('25e)1,869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4.2	4.3	4.9	4.4	2.3	0.8	2.7	3.4	2.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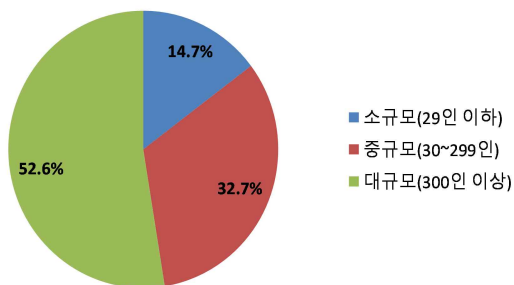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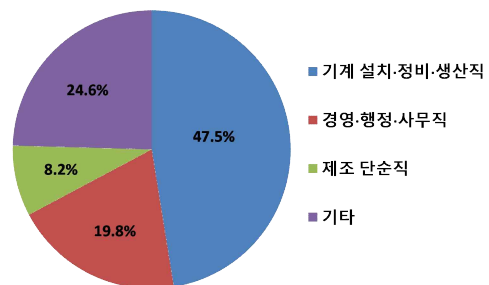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40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52.6%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2.7%,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4.7%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1.0%), 울산 북구(9.6%), 경기 화성시(6.2%), 충남 아산시(5.8%), 경남 창원시(4.7%), 경북 경주시(3.5%), 경기 평택시(3.4%), 서울 강남구(3.2%)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5%), 경영·행정·사무직(19.8%), 제조 단순직(8.2%)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4년 상반기(398천 명) 대비 1.1%,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5.4천 명, 채용인원 13.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2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14.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6.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2.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5.4%), 경영·행정·사무직(16.5%), 제조 단순직(15.3%)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0.2%), 경북(16.5%), 충남(14.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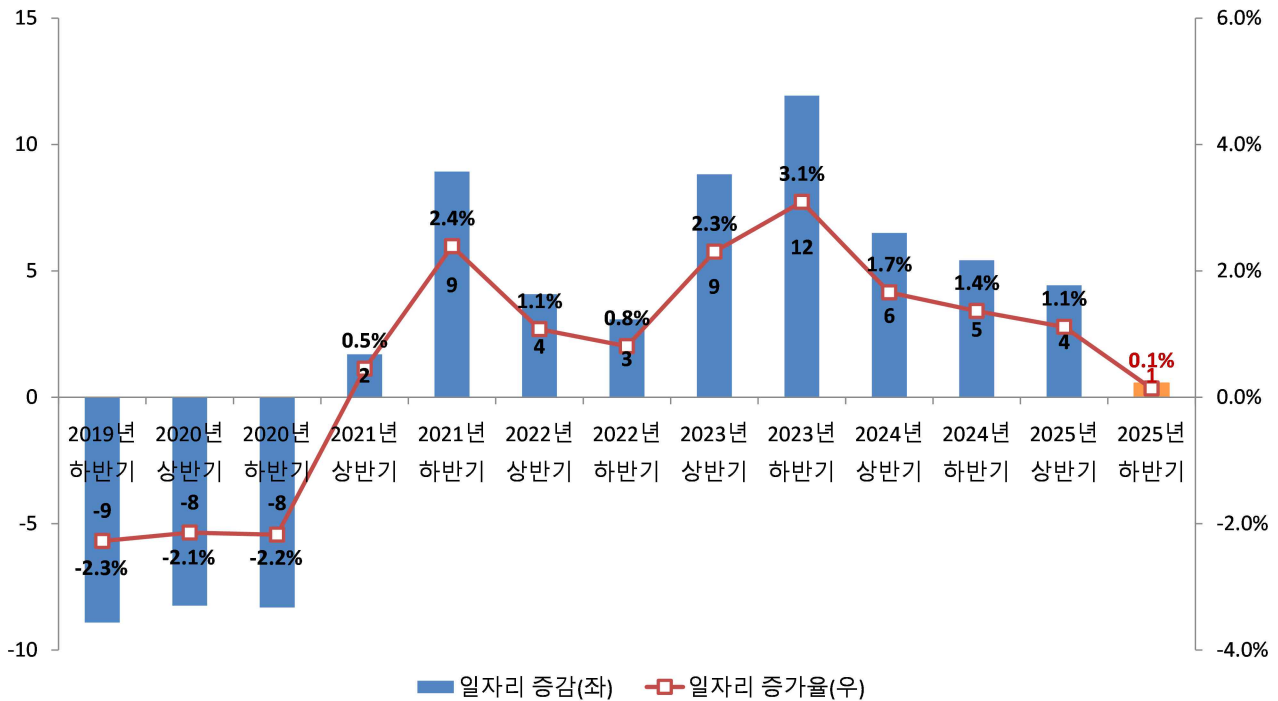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산업 경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확대, 신모델 출시와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내수와 생산은 유지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내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제약으로 신차 구매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하이브리드 차량(HEV)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
 - * 2025년 연간 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66만 대 수준 전망(KAMA)
 - (수출) 미국의 관세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주요국 재고 증가와 보호무역 강화 등 국제통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소 전망
 - * 2025년 1~5월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300억 달러 기록
 - ** 한국 자동차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예상(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생산) 국내 생산량은 관세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량 유지가 기대되고 다양한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상반기 수준인 약 215만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2025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413만 대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KAMA)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4	1.1	0.8	2.3	3.1	1.7	1.4	1.1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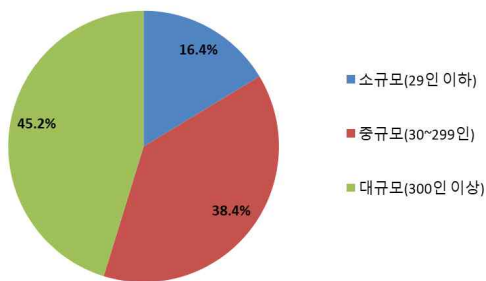
-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2024년 하반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서울, 충남,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 제조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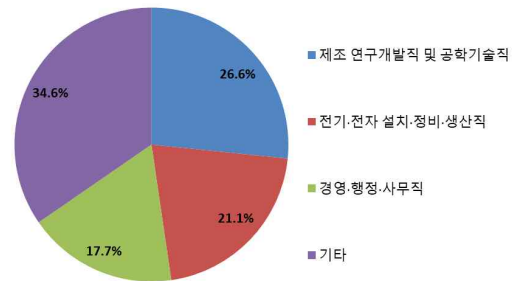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5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45.2%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8.4%,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6.4% 근무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1.1%), 경영·행정·사무직(17.7%)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116천 명) 대비 0.8%, 1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6천 명, 채용인원 3.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8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18.2%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5%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10.4%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4.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4.2%), 경영·행정·사무직(13.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3.7%), 충남(27.9%), 충북(6.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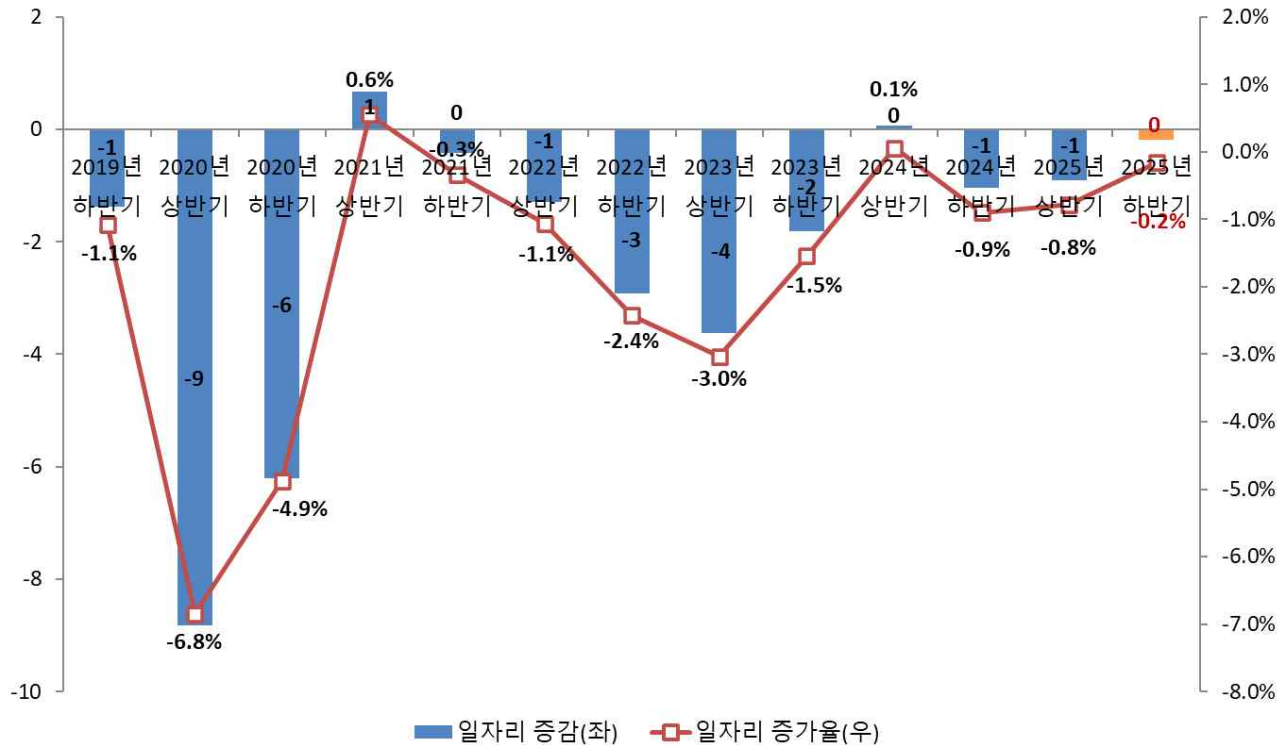
경기전망

- (시장전망) OLED는 ▲AI 대중화에 따른 저전력(LTPO) 수요 확대, ▲프리미엄 IT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및 2026년 상반기 수요(올림픽 등)를 고려한 디스플레이 하반기 사전 출하로 시장 개선 기대
 - (스마트폰) 아이폰17 출시('25.9월), LTPO 확대 적용(2개→쑈 모델) 등 공급단가 높은 패널 출하량 증가로 국내 업계 실적 개선 기여 전망
 - * 스마트폰 OLED 패널 단가(\$): (아이폰16 기본)^[LTFS, 6.1"] 70 / (아이폰17 기본)^[LTPO, 6.3"] 96
 - (IT) IT 제품의 프리미엄 라인업 內 OLED 적용 확대 및 대면적·高性能(주사율 등) 선호 증가로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세 지속 전망
 - * 글로벌 IT용 OLED 출하량(천대, yoy): ('23.下)5,077→ ('24.下)12,019→ ('25.下^o)14,483(20.5%)
 - (TV) 고효율 가전 관심 증대에 따른 ▲선진국(미국, 유럽) 수요 증가 및 ▲세트기업의 OLED 라인업 확대 기조로 OLED TV 출하량은 증가
 - * 글로벌 TV용 OLED 출하량(천대, yoy): ('23.下)2,942→ ('24.下)3,769→ ('25.下^o)4,050 (7.5%)
- (수출전망) AI 본격화 및 IT·자동차 OLED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LTPO, 투스택텐덤 등) 수요 견조로 OLED는 전년比('24.下) 5.5% 증가한 81억 달러, LCD는 IT 교체수요 및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증가로 전년比('24.下) 10.9% 증가한 24억 달러 전망
 - (주력품목) 국내기업은 고부가가치 분야인 OLED 생산 확대로 OLED 76%, LCD 24%의 수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하반기 전망)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고부가가치 채택 확대(LTFS→LTPO), ▲프리미엄 IT OLED 제품 출시(아이패드 프로)로 OLED는 수출 증가, LCD는 2026년 초 이벤트(올림픽 등)로 수출 개선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0.3	-1.1	-2.4	-3.0	-1.5	0.1	-0.9	-0.8	-0.2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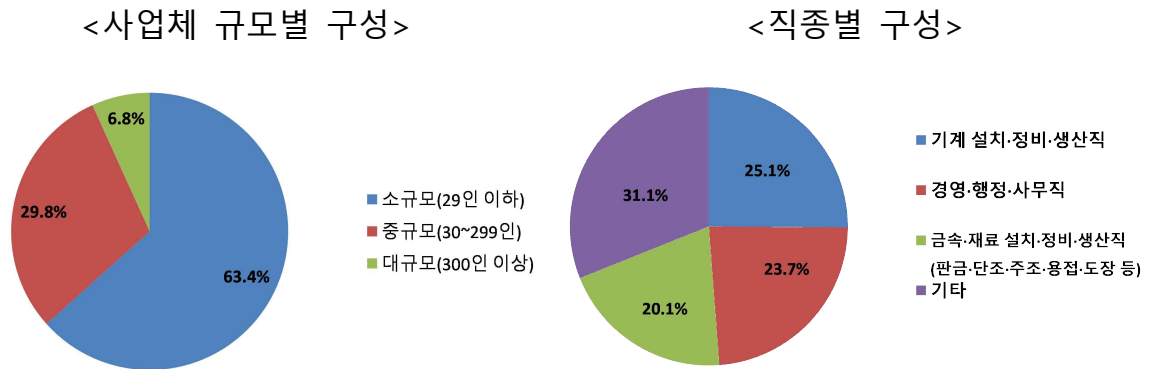
● 2025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4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0.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남, 경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속가공

금속가공업은 금속을 절단, 성형, 조립 및 가공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 및 난방용 보일러,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 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 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종

근로자 현황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32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506천 명)의 2.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63.4%의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29.8%,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6.8%가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7.6%), 경남 김해시(4.5%), 경기 시흥시(4.0%), 경기 안산시(3.9%), 경기 김포시(3.5%), 부산 강서구(3.5%), 인천 남동구(3.3%)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5.1%), 경영·행정·사무직(23.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0.1%) 등으로 구성
-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324천 명) 대비 0.7%,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7.3천 명, 채용인원 14.0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3천 개
 - 금속가공 업종의 미충원율은 19.0%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p 낮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11.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3%)'에 이어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9.8%)'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25.6%), 제조 단순직(20.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9.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5.8%), 경남(14.3%), 경북(9.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경기전망

- (내수 전망) 건설경기 부진 지속 및 제조업 전반 둔화의 영향으로 내수 위축 예상
 - 설비투자 수요 일부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전방산업(기계·건설 등)의 수요 정체로 내수 반등 여력은 제한적
 - 금속가공 제품은 설비·기계류 및 건설구조물, 철물 등에 투입되므로 내수 역시 하반기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수출 전망) 글로벌 수요 부진 및 미국 고관세 정책 등 교역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여건 악화되어 정체 수준 또는 소폭 감소가 전망됨
- (생산 전망) 내수 및 수출 동반 둔화로 인해 생산량은 하반기에도 하락세 지속 예상
 - 기계산업의 생산이 하반기 -3.5%로 예상된 만큼, 부품 공급 구조를 갖는 금속가공업도 유사한 폭의 감소세가 예상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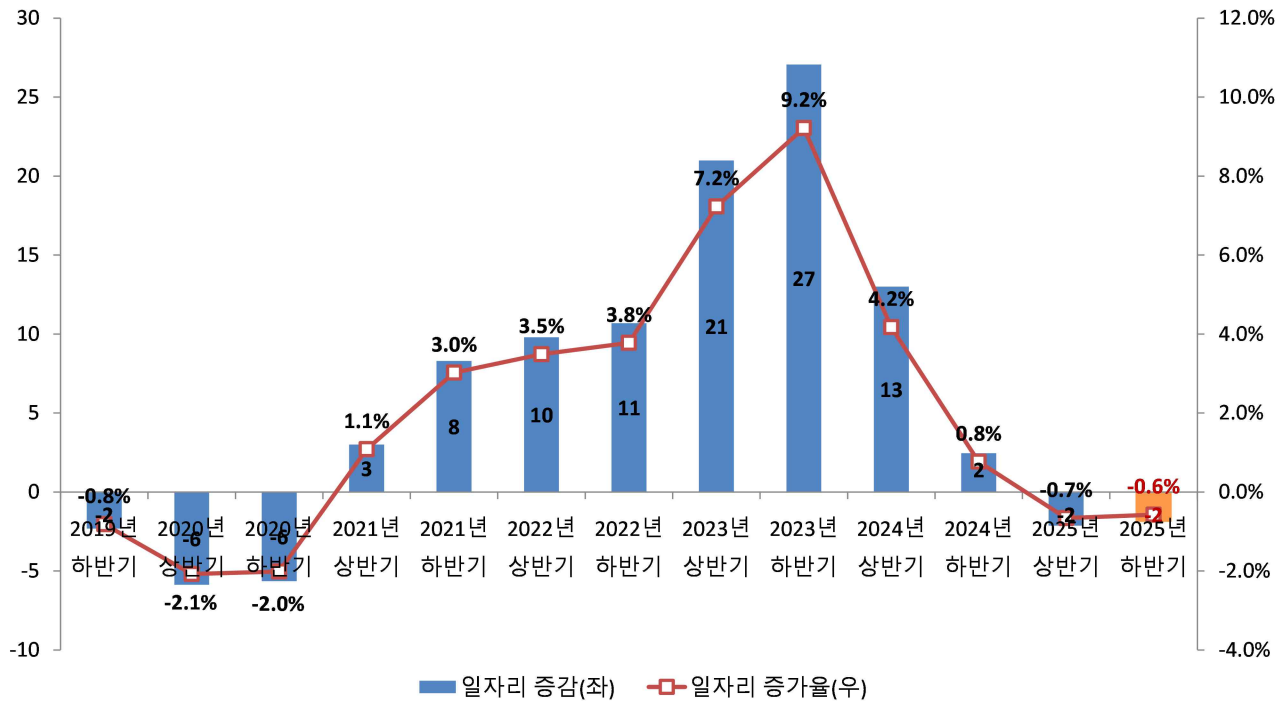
금속가공산업			'24년	1/4	5월	'25.1/4	3월	4월 ^p	5월 ^p
생	산	전월(기)비	-	0.8	-0.5	-0.3	-3.4	0.0	-6.9
		동월(기)비	5.2	1.4	3.7	2.4	10.6	4.9	-4.9
출	하	전월(기)비	-	-8.8	0.3	-9.5	-0.7	-0.2	-7.2
		동월(기)비	3.2	1.3	3.5	-1.2	7.5	2.6	-7.8

출처: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속가공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3.0	3.5	3.8	7.2	9.2	4.2	0.8	-0.7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4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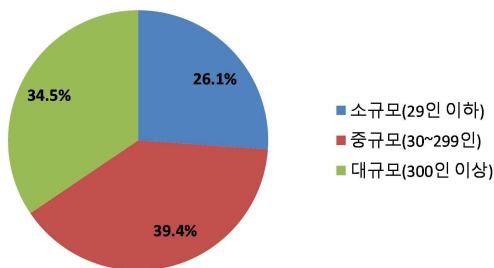
-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종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화학적 변환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합성고무, 화학비료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합성원료로 다양한 유기 화학물을 제조하는 부문과 각종 무기화학물 및 유도체를 제조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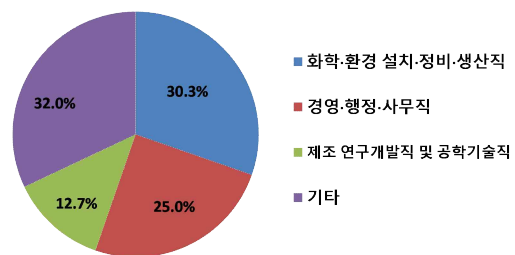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상반기 현재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26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506천 명)의 1.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9.4%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34.5%,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26.1%가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5.7%), 경기 화성시(5.0%), 울산 남구(4.4%), 전남 여수시(4.3%), 서울 종로구(4.1%) 등에 다수 위치
 - 산업별로 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93.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6.9%)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30.3%), 경영·행정·사무직(25.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7%) 등으로 구성
-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상반기(261천 명) 대비 1.6%,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7.7천 명, 채용인원 6.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4천 개
 - 석유화학 업종의 미충원율은 17.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9.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1%)',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12.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7.3%), 경영·행정·사무직(25.2%), 제조 단순직(19.8%)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5.5%), 충남(18.1%), 충북(8.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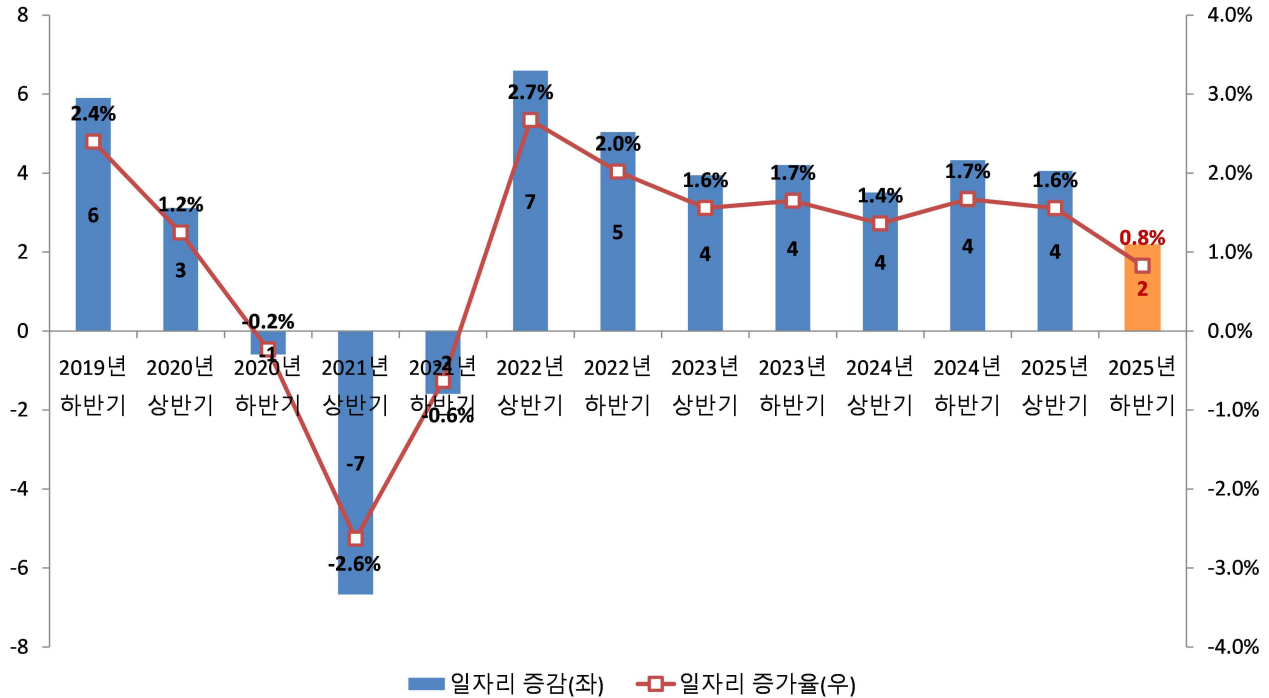
경기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업황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중국의 내수 중심 공급망 자급률 확대, 중국의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산업 업황 불황은 지속 전망
 - (긍정요인) 미국·EU의 금리 인하,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일부 글로벌 수요 회복 가능성 존재
 - (부정요인) 공급과잉 구조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수출 환경 악화 우려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0.6	2.7	2.0	1.6	1.7	1.4	1.7	1.6	0.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5년 하반기 석유화학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업종 고용 규모는 2024년 하반기 대비 0.8%(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